Petrobras, 바이오연료 인디아 수출

Bharat와 수출 양해각서 교환 ... 인디아거점 세계시장 구축 기대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가 인디아 석유기업인 Bharat와 바이오에너지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Petrobras는 “인디아 시장은 물론 인디아를 거점으로 에탄올(Ethanol) 및 바이오디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Petrobras는 앞으로 인디아 정부가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연료 사용 정책을 채택하면 막대한 시장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 브라질이 추진하는 에탄올 세계시장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etrobras는 에탄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공장 및 에탄올 수송관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Petrobras는 8월 말 발표한 2007년 사업계획을 통해 에탄올 7억5000만-8억5000만리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31>